【 2020.9.1(화) 강원일보 】

◇오인철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1일 낮 12시 원주 파크밸리 골프클럽 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갖고 업종별 당면 현안을 논의.

【 2020.9.1(화)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1일낮12시원주파크밸리 회의실에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제4차정기회의를개최한다.

건설업 종사자, 코로나 본격화 이후 첫 감소

고용부,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체업종 1844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8000명 감소

건설업계, 전달보다 4000명 '↓'
채용규모도 2만4000명 줄어
코로나에 더위·장마 겹친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업 종사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와 장마·폭염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인데, 감소세가 8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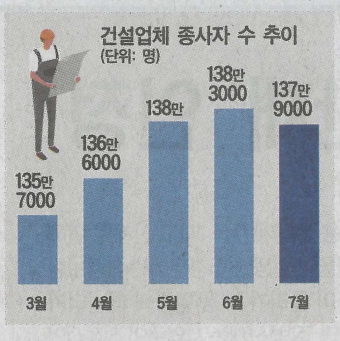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4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1858만3000명)에 비해서는 13만8000명 적은 인원으로,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감소 폭이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작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3월 22만5000명(-1.5%) 감소한 데 이어 4월 36만5000명(-2%)이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5월 31만1000명(-1.7%), 6월 21만4000명(-1.2%), 7월 13만8000명(-0.7%)으로 3개월 연속 감소 폭이 축소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4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폭이 지속 축소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중"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 폭이 컸던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3월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종사자 수가 줄었다.



7월 건설업체 종사자 수는 13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38만3000명)에 비해 4000명 줄어든 수치다.

그동안 건설업 종사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135만7000명을 시작으로 △4월 136만6000명 △5월 138만명 △6월 138만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건설업의 채용규모도 줄었다.

7월 건설업에서 채용된 인원은 23만7000명으로, 전달(26만1000명)에 비해 2만4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 채용인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2.8%에서 28.5%로 떨어졌다.

건설업 종사자 수 감소 원인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장마가 사상 최대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8월 건설 고용시장은 더욱 쪼그라든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 연구위원은 "8월에도 절반은 폭우가 쏟아져 건설현장이 개점휴업 상태였고 태풍까지 겹치며 쉬는 현장이 평년에 비해 더욱 많았다"며 "여기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불안요인이 더해졌다는 점은 9월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희용기자 hyong@